



보도시점 2026. 8. 9.(일) 11:00
8. 10.(월) 조간

배포 2026. 8. 7.(금) 16:00

농식품부, '26년산 보리 수급안정을 위해 주정회사·농협과 함께 특별 매입 추진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8개 주정회사*가 '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.

* 롯데칠성음료, MH에탄올, 서안주정, 서영주정, 일산실업, 진로발효, 창해에탄올, 풍국주정공업

** 주정 : 녹말·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소주의 주원료

'26년산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이에 따라, 농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협의해 왔다. '26년산 보리 생산 물량 중 기 계약재배 물량 40천 톤 외 25천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하였다. 특히, 주정회사는 주류 소비감소로 주정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* 생산량 : ('23) 97,794톤 → ('24) 70,891톤 → ('25) 92,224톤 → ('26) 135,881톤

** 재배면적 : ('23) 25,250ha → ('24) 23,298ha → ('25) 25,234ha → ('26) 37,250ha

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“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”이라며, “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,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 “앞으로도 정부는 농산물의 생육 및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	책임자	과 장	김민호 (044-201-2911)
		담당자	서기관	서은희 (044-201-2912)

